

공은 현대제철에게 "조건없이 교섭 나오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게시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다. 교섭창구단일화라는 교섭을 가로막는 쓸데없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법적 절차는 완료된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나오지 않으면 그 여파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책임져야 한다. 현대제철이 하청사장을 교섭에 끌고 나온다면, 교섭장은 대화의 장이 아니라 전투의 장이 될 것이다. 그 책임 또한 현대제철에게 있다.

앞으로 열흘의 시간, 이제 공은 현대제철에게 넘어갔다.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오든, 안나오든, 하청사장을 앞세워 나오든, 노조는 노조 계획대로 간다. 휘방꾼들 탓에 원청은 시간 끝만큼 끌었다. 이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장투쟁을 통해 원청교섭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나갈 것이다.

노동부는 허울뿐인 원청교섭으로 성과 포장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진짜 교섭'을 자본에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라.

원청교섭 창구단일화 절차 완료. 금속노조 유일 교섭노조 확정 노조, 10월 2일 "원청교섭 상견례 열자" 공문 발송 하청사장 교섭참여 쟁점 여전 "하청사장은 원청교섭 당사자 아니다" 현대제철은 불필요한 마찰 발생시키지 말고 결단해야 할 것 노동부는 자화자찬 성과치장 말고 제대로 된 원청교섭 지도해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종료일(26. 9. 15.)까지 당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21.

☐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상만
교섭요구일	2026. 9. 7.
조합원 수	0 전국금속노동조합 2,210 명 -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선) 2,085명 - 광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 125명

☐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 중에 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generalaffairs@hyundai-steel.com]

2026. 9. 16.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국금속노동조합

KOREAN METAL WORKERS' UNION

세비유구 58655-5555 / 연세유구 58655-5555 / 팩스 02-2639-3174 / kowu@kowu.net

문서번호 : 금속(충남)-26-09-002
시행일자 : 2026. 9. 22
수 신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이보룡
참 조 : 노사합력팀 (인사노동담당자)
계 목 : 금속노조 2026년 단체교섭 요청 건

1. 노동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노사관계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속노조 2026년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되어 금속노조가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귀 사는 개정,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아래 일정에 같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4. 교섭요구 등 관련 사항은 금속노조가 기 발송한 공문 [금속(충남)-02-26-06-004] [금속(충남)-26-06-009] [금속(충남)-26-06-010] [금속(충남)-26-09-001]을 참조하여 주시고, 2026년 단체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대제철 원청교섭

-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1시

- 장소 : 당진, 현대제철 사내 회의실

- 노동조합 교섭위원 명단 : <첨부자료 참조>

* 문의 : 김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정책국장 (010-3652-2687).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만

현장이야기 10

기획된 착취를 뚫고 원청의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현대위아 서산공장은 단순히 생산이 아닌 '불법 파견 리스크 해소'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기획공장다. 현대위아에서 우신-ATS, 마팔-탤즈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하청 3중 구조 아래, 우리는 강압적인 전환배치와 계약 만료 협박 등을 견디었다. 원청으로부터 물량 받지 못해, 일상적인 강제 연차와 계약직 대량 해고도 겪었다. 정당한 성과급마저 중간에서 가로채이기도 했다.

억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는 2023년 4월 금속노조 깃발을 세우고 당당히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단체교섭 와중에 현대위아는 고용안정이라는 약속 대신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우리는 전국의 현대위아 하청지회 동지들과 연대하며 또 다른 하청 구조에 맞서 거세게 저항했다.

우리가 마주한 자회사의 현실은 역시나 독이 든 성배였다. 고용안정을 약속했던 현대위아는 자회사 전환 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약속을 저버리고, 모든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며 뒤로 숨어버렸다.

자회사는 독자적인 영업이나 신규채용 권한이 전혀 없었다. 임금과 복지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오로지 원청의 눈치만 보는 바지사장 체제의 거대 생산 대행사임이 드러났을 뿐이다.

테크젠-모비언트 동지들이 함께 올해 6월 현대위아에 원청교섭 상견례를 요청했으나 원청은 묵묵무답이다. 현대위아는 법적 공백을 지렛대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하지만 이런 꿈수는 오래갈 수 없으며, 노동자의 저항과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후배들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원했다. 지금 현장은 언제 회사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다. 기획된 착취도 자회사라는 사기도 현대위아가 저질렀다. 우리의 미래와 고용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당한 교섭과 강고한 투쟁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다.

유세풍 / 금속노조 충남지부 테크젠지회 지회장